전남 농·축협 조합원 수 또 줄었다

2019년 28만8774명으로 6365명 줄어…14년 연속 감소

광주·전남 판매실적 증가…광주 하나로마트 매출 700억대

광주·전남 지역 농·축협들의 조합원 수는 1년 새 6200명(-2.0%) 넘게 감소했지만, 농산물 판매실적은 1940억원(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지역 농·축협 조합원 수는 전남 28만8774명·광주 2만802명 등 30만9576명으로, 전년보다 2.0%(-6255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2.2%(-6365명) 감소하고, 광주는 0.5%(110명)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지역 농·축협 수는 전남 146개·광주 14개이다.

전남 농·축협 조합원 30만명 선이 무너진 건 지난 2018년부터다. 2017년 30만5673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이듬해 29만5139명으로 줄었다.

전남 조합원 수 감소세는 지난 2005년(37만258명) 이후 14년 연속 지속하고 있다.

광주 조합원 수는 지난 2017년 2만1481명에서 2018년 2만692명으로, 2만명 선 붕괴 위기를 맞았다가 2019년 조합원 수가 증가로 돌아섰다.

농·축협 직원 수는 전남지역에서 1년 새 700명 넘게 증가하면서 광주·전남 1만명대를 회복했다.

2019년 기준 농·축협 직원 수는 전남 9330명·광주 1254명 등 1만584명으로, 전년보다 전남은 8.6%(735명) 증가하고 광주는 0.4%(-5명) 감소했다. 지난 2018년 전남 농·축협 직원 수는 전년보다 305명 줄어든 8595명을 나타냈지만 2019년 3월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영향으로 1년 새 직원이 700명 넘게 증가했다.

광주·전남 농·축협들의 주요 경제사업 실적 가운데 판매 실적은 전년보다 5.8%(1940억원)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지역농협 판매 실적은 전남 3조4294억원·광주 1387억원 등 3조5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전남은 5.9%(1917억원), 광주 1.7%(2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 농·축협들의 구매 실적은 같은 해 전남 1조3426억원·광주 485억원 등 1조3901억원으로, 전년보다 전남은 3.7%(484억원) 증가하고 광주는 1.7%(-8억원) 감소했다.

전남 구매 실적은 1조1525억원(2016년)→1조2201억원(2017년)→1조2932억원(2018년)→1조3416억원(2019년)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473억원(2016년)→479억원(2017년)→493억원(2018년)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485억원으로 1.7%(-8억원) 줄었다.

한편 광주지역 농·축협들의 하나로마트 매출액은 6년 연속 성장하면서 지난 2019년 처음 700억원대를 넘겼다. 2019년 기준 광주 하나로마트들의 매출액은 726억원으로, 전년(642억원)보다 13.0%(83억원) 뛰었다.

지역농협들의 농·축산물 가공 실적은 2019년 기준 전남 4505억원·광주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렴한 축산농협 되겠습니다 광주축산농협(조합장 김호상·가운데)은 최근 광산구 신촌동 본점 대회의실에서 '고객신뢰 회복과 임직원 윤리의식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고객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짐 결의문을 제창했다. 〈광주축협 제공〉

주암댐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하고 주민 소득 올린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오염 문제 해결 순환체계 조성 지역연대

순천 주암댐 상류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되며 주변 환경을 보호하며 주민 소득을 올리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21일 순천시 주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 의제로 선정된 '주암댐 상류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체계 조성'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섬유역본부가 추진하는 '주암댐 상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체계 조성'은 순천시와 주민, 환경·소비자 단체가 함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행 의제를 소개하고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식수원인 주암댐 상류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게 목표다.

올해는 지역공동체와 플라스틱에 대한 올바른 배출 캠페인을 벌인다. 또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분류 체험행사를 열고 재활용(업사이클링) 제품개발과 전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폐플라스틱, 비닐 등 활용 기술을 개발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박명기 주암댐지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소득사업과 밀착할 업사이클링 사업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농협 광주지역본부에서 열린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식'에서 박서홍(맨 오른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과 고성신(맨 왼쪽) 광주본부장, 문병우(왼쪽 두 번째) 서광주농협 조합장, 노종진 능주농협 조합장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사업 협약을 맺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전남 농협 손잡다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 체결…타 시·도 협력 추진

서광주농협,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자금 투자

전남 농촌농협과 광주 도시농협이 첫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른 시·도와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본부 회의실에서 화순 능주농협과 서광주농협이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서홍 전남본부장과 고성신 광주본부장, 문병우 서광주농협 조합장, 노종진 능주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각 시·도 내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상생 협약을 맺은 사례는 있었지만, 전남과 광주 간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농상생 공동사업'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저온저장시설 등에 공동 투자·운영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도시농협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도농상생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광주농협은 올해 12월 개점 목표로 조성 중인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화순군 능주면)에 신축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광주농협과 능주농협은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종합경영평가 입지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대도시형'은 본점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본점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에 소재한 지역농협은 '중소도시Ⅱ형'으로 구분되며 인구 30만명 미만은 '중소도시Ⅰ형'으로 부른다. 본점이 읍에 소재한 지역농협은 '준농촌형', 본점이 면에 있으면 '농촌형'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전남 첫 도농상생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도시·농촌 간 다양한 사업안을 발굴하겠다"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들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영암농협 무화과 3000t 선별장 준공

무화과 주산지 영암에 연 3000t 물량을 처리할 선별장이 들어섰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2일 영암군 미암면에서 서영암농협 무화과 선별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9억6000만원이 투입된 선별장은 연면적 603㎡(182평)에 하역장, 선별실, 예냉실 등을 갖췄다.

영암은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56%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전남농협은 광역과실브랜드인 '상큼애'로 지난해 110억원(1967t)의 매출을 올렸다.

작황이 양호한 올해는 신안군 생산량을 포함 총 3000t이 생산·유통될 예정이다.

이날 준공 기념행사에는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과 문수전 농협 영암군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우승희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서영암농협 선별장이 준공됨으로써 삼호농협, 압해농협과 함께 전남산 무화과 유통의 규격화와 전문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